

광주 삼겹살값·전남 하수도요금 '전국 최저'

숙박·세탁비도 가장 저렴...이용료·삼계탕은 비싸

공공물가 안정세 속 식·음료 등은 상승 속도 빨라

행자부 지방물가정보

광주는 삼겹살과 숙박료가, 전남은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물가정보 서비스(1월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외식비 중 삼겹살 1인분 가격이 1만844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숙박료는 3만5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4만5000원과 비교하면 1만원 가량 저렴했다.

세탁료 역시 광주가 5800원으로 대전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은 6444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제주(8250원), 경북(7538원), 울산(7400원)순으로 높았다.

또 이용료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만800원과 1만2222원으로 가장 비싼 대구(1만7667원)와 울산(1만2600원) 등과 비교됐다. 반면 삼계탕 가격은 광주가 1만4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만3000원으로 1만1300원하는 충남과 비슷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가격은 각각 6600원과 5722원으로 2년전(2015년) 같은 기간 5900원과 5389원 보다 11.9%(700원), 6.2%(333원) 올랐다. 비빔밥 역시 광주가 2년전 6800원이던 것이 7500원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6222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뛰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부진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식재료 값이 오른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하수도 요금이 398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다. 8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울산의 절반수준이었다.

또 쓰레기봉투값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740원과 315원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곳은 부산으로 813원이었다.

지하철 요금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이 1250원으로 동일했다. 부산만 1200원이었다.

이와 관련 호남지방통계청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공공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식·음료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는 가팔라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민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과 숙박료, 김치찌개 등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산물 가격 정보 등은 행정자치부 지방물가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세관 '납세자의 날' 행사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복구 오통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왼쪽부터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엠코테크놀로지(주) 최덕룡 수석,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삼진지.에프 허귀호 대표이사. <광주본부세관 제공>

서영주정 국무총리 표창...4개 업체 기획재정부장관상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복구 오통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우리 지역 수출입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서영주정(주)이 모범납세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았고 (주)삼진지-에프 등 4개 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최덕룡 수석 등 2명은 세정협조자로 선정되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양승권 세관장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8일까지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여, 대국민 홍보 및 수출입 업체에 대한 '감사의 서신' 보내기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유시민 전 장관 사외이사 영입 '화제'

주총 통과시 2020년까지...주가 급등·포털 실검 1위 기록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전남 향토기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오는 24일 목포 보해양조 본사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유시민 전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보해양조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16~17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 전 장관은 현재 JTBC 시사 프로그램 '셀전'에 출연하고 있다. 유 전장

관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 주 오프라인에서 보해양조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3일 주식시장에서는 보해양조 주가가 전일대비 23.71%까지 급등하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전부터 보해양조에서 사외이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민간기업에 관련된 일은 새로운 일이라 호기심도 있어 수락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양조 경영진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 경험



을 지닌 유시민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모시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며 "유 전 장관이 사외이사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회사 이미지는 물론 경영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는 임지선 대표이사, 채원용 사장, 이흥훈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임종욱 순천도지사재생위원회 위원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인턴사원 모집

15일까지...대학 졸업자 포함

기아자동차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기아차는 지난 3일부터 채용 홈페이지(recruit.kia.com)를 통해 2017년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은 3월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17 인턴K'로 명명된 이번 인턴사원 모집의 특징은 적극적인 채용 연계형, 기졸업자까지 지원자격 확대, 졸업시기에 따른 입사시기 결정 등을 통해 지원자의 정형화된 인턴 채용의 틀을 깬다는 데 있다.

2017 인턴K는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대신하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기아차는 실습과정 중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채용 연계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대학교 재학생이었던 기존 인턴 지원자격의 범위를 기졸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졸업자들에게도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사원들은 올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7주간의 실습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중 실습 우수자에게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조기 적응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접 경험하고 취업하는 신개념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들이 자동차 산업의 실무를 경험하며 본인에게 최적화된 취업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저성장 고착되는 '한국'

지나해 경제성장률 2.7% OECD 10위...2년 연속 10위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 가입 이후 한때 성장률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정상급 경제 활력을 과시했지만 이제는 OECD 내에서도 '성장 중진국'으로 처져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그쳤다.

2015년 12위였다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두 자릿수 등수에 그친 셈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년 연속 10위권대에 그친 것은 4년 연속(2003~2006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제는 단순히 성장률 순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970년대는 연평균 10%가 넘었다.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로 5%를 밑돈 데 이어 2010년대 들어서는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6.5% 살짝 성장한 2010년을 제외하면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 등으로 3% 성장마저 버거운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전망치로 지난해(2.7%) 보다 낮은 2.6%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2%대 저성장을 이어가면 내년에는 미국(3.0% 전망)에도 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이달중 마지막 신입 공채

4000여명 규모...미전실 해체 따라 내년부터 그룹공채 폐지

삼성그룹의 마지막 신입사원 공채가 이달 중 공고된다. 삼성그룹 공채 시험은 내달 16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삼성 계열사들에 따르면 미래전략실이 지난달 28일 전격 해체되면서 공중분해된 그룹 인사지원팀의 주요 임직

원들은 6일부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으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옛 미전실 산하 커뮤니케이션팀 임직원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 태평로 사무실로 출근하고, 금융일류화지원팀 임직원 대부분은 삼성생명으로 이동한다. 전략팀이나 경영진단팀 등 나머지 팀 소속 임직원은 원소속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이들 중 인사지원팀 소속원은 일단 수원사업장에서 사무실을 얻어 상반기 그룹 공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삼성 계열사의 대졸 신입사원 상반기 공채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3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했다.

통상 1년 전에 잡아놓는 삼성 공채시

협 고사장 예약일은 4월 16일이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이날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채용 인원은 예년 수준(약 4000명)이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으로는 60개 계열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을 하게 된다. 삼성의 그룹 공채 폐지는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74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0	15	18	21	34	41
4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55,411,575	1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7,352,934	61		
3	5개 숫자일치	1,039,414	2,779		
4	4개 숫자일치	50,000	109,229		
5	3개 숫자일치	5,000	1,636,793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